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062)970-0114 | 전남과학대학교 061)360-5050

'디지털 김치 홍보대사' 150명 떴다 ▶2
광주에서 만나는 거장 김환기展 ▶12
류현진, 한국인 첫 데뷔 첫해 10승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544호 1판 2013년 8월 5일 월요일 (음력 6월 29일)

세계수영대회 파문 U대회로 불똥 튀나

정부 재정지원 지연 대기업들 후원도 꺼려 '흑자대회' 운영 비상

2년 앞으로 다가온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의 '흑자 대회'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대회인 U대회는 대회비용 일부를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지방비 부담을 놓고 정부와 광주시간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여기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해 광주시와 정부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기업 사이에 스폰서(업체 후원)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5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U대회에는 경기장 등 시설비 4683억원, 운영비 3488억원 등 총 8171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70%인 5562억원은 시비와 대기업 스폰서 등으로 마련해야하며, 나머지 30%(시설비 1563억원, 운영비 1046억원)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2009년 대회 유치 이후 4년이 넘은 7월 현재 정부는 총 지원액 2609억원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20억원(시설비 761억원, 운영비 259억원)만 지원한 상태다.

이로 인한 대회 운영비 부족으로 언론홍보 및 영상제작, 교통매체 광고 등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계획마저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U대회 지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2019년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지원불가' 방침을 밝히는 등 광주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U대회 지원마저도 더욱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광주시가 운영비 중 매칭 지방비 38억원을 일시 미납한 것을 이유로 운영비 지원을 삭감 또는 중단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흑자대회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대기업 스폰서 유치도 문제다. 올 1월 SK텔레콤·SK C&C와 566억원의 후원 협약을 맺은 뒤 경제 불황 등 으로 스폰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즐비한 국제 이벤트와의 대기업 스폰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와의 충돌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국내 대기업들과 스폰서 접촉을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대기업의 속성상 광주시와 스폰서 협약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휴가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국내외 22개 대기업을 상대로 본격적인 후원기업 유치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지원액은 법으로 명시돼 있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스폰서 유치 등을 통해 흑자대회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

명사십리 해수욕장 피서 절정 4일 완도 명사십리 해변을 찾은 수많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3 코리아 오픈 국제호버크래프트대회' 등이 열린 명사십리 해수욕장에는 3~4일 전국에서 17만여명의 피서객이 몰렸다. /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개최권료 재협상 지지부진…정부 "내년 국비 못줘"

전남도 F1 운영비 확보 '발동동'

정부가 올림픽 등 5대 메이저 대회를 제외한 국제스포츠대회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남도가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비 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다.

도는 내년 F1 대회 운영비 204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5대 메이저 대회가 아닌 F1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일 전남도는 "내년 F1 대회 운영비 204억원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이저대회는 종합대회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가 있고 단일종목 경기대회로는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 등이 포함된다. 이들 5개 대회를 제외한 다른 스포츠 경기에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 2010년 1848억원이던 스포츠경기 국비 지원금은 올해 2배 가까이 증가한 3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500억원에 달하는 F1 개최권료를 인하하기 위해 F1 운영사인 FOM(포뮬러 원 매지니먼트)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 부처 예산에 F1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F1 운영비를 지원받는 방법밖에는 없게 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쪽지 예산으로 지난해 50억원, 올해 100억원의 국비를 F1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받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쪽지 예산 근절 방침과 정부의 스포츠 예산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겹쳐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 예산에는 F1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충분히 흑자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세차례 대회를 치른 F1은 17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근로빈곤층 전국 2번째 많아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아

전남지역에 근로 빈곤층이 많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EITC 지급 비율이 6.2%로 전국 평균 4.3%를 웃돌았고, 제주(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EITC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 수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1300만~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EITC 지급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근로 빈곤층이 많다는 뜻이다.

각 지방 국세청별 EITC 비율은 광주청이 5.9%로 가장 높았고 대구청 5.1%, 대전청 4.6%, 부산청 4.5%, 중부청 4.2%, 서울청 3.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 7.0%, 전남 6.2%, 광주와 전북이 각 5.8%, 강원 5.7%, 경북 5.2%, 대구와 충북 각 5.0%, 경남 4.7%, 대전 4.5%, 인천과 충남 각 4.4%, 부산 4.2%, 경기 3.9%, 울산 3.5%, 서울 3.1% 순이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국민연금 68.4%, 건강보험 71.1%, 고용보험 66.6%였지만 전남지역은 국민연금 65.3%, 건강보험 67.4%, 고용보험 62.9%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확장·이전
문의 : 062)226-0001
Mercedes-Benz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 부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LIRIKOS
고농축 수분으로 힘있게 살아나는 수분피부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은 작습니다. 605m 깊은 바다가 응축하고 응축하여 만든 심층수를 그대로 담아 낸 수분 앰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아도 피부가 아무리 건조해도, 촉촉함이 힘있게 살아납니다. 이제 작지만 강한 바다 수분 앰플을 만나보세요.
촉촉한 5ml의 바다
지구의 70%나 차지하는, 그러나 쉽게 다가갈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바다 – 그 속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모두 어렵다는 이유로 육지만을 주목할 때 리리코스는 끊임없이 바닷속 새로운 발견을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 심층수에서 수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유해물질이 살기 어려운 온도 2℃의 순수한 생명력, 수백년간 다른 해수와는 거의 섞이지 않은 고유수의 생명력, 그리고 605m 바닷속 높은 압력에 응축되고 응축된 진하고 강한 생명력까지 – 리리코스는 이런 순수한 심층수를 5ml 작은 앰플에 담았습니다
LIRIKOS MARINE HYDRO AMPOULE EX e 5 ML
리리코스는 뷰레이터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아모레퍼시픽 고객 상담실 080-023-5454 www.lirikos.co.kr